



매주 태호의 방산 Weekly

2026.09.14

강태호 방산 / kth@ds-sec.co.kr

27년 국방예산으로 보는 K-방산 발전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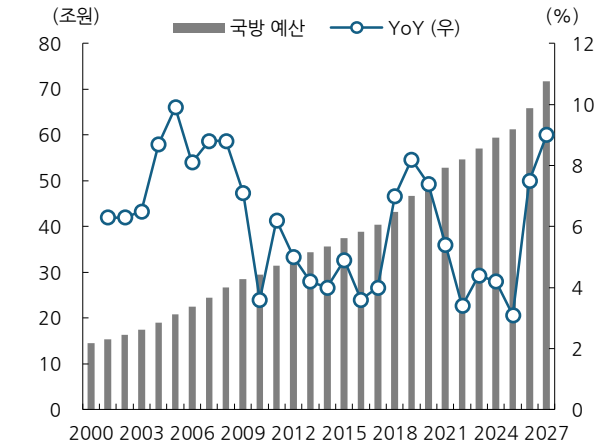
■ 27년 한국 국방 예산 첫 70조 돌파

- 정부는 27년 국방예산을 73.2조원(+8.2% 이하 YoY)으로 편성. 국방비가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으며, 증가율 기준으로도 2008년 이후 최대 폭
- 이 중 무기·장비의 신규 획득과 성능 개량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2.7조원(+13.8%)
- 방위력개선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으로 12.2조원(+34.9%)
- 주요 항목은 KF-21 양산(3.3조원), 천무 230mm급 무유도탄(5,504억원), 핵추진잠수함 개발(966억원) 등이며 L-SAM 조기 전력화 예산도 포함
- 특히 KF-21 예산은 26년 1.4조원 대비 2.4배 수준. 올해 하반기 8대 인도가 예정되어 있고, 28년 40대 양산 계획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형인 Block-2 예산 1,500억원이 신규 편성되며, Block-1 인도와 Block-2 양산 준비가 병행될 전망
- 이는 Block-2 생산 일정이 35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편성으로, 잠재 수출국 입장에서 국군의 빠른 전력화는 긍정적 레퍼런스로 작용 → 인도네시아·필리핀향 KF-21 수출 논의 가속화 전망
- L-SAM은 26년 국내 양산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조기 전력화로 양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 국내 전력화 실적을 발판으로 중동향 수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 연구개발 중인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역시 전력화 시기가 기존 31년에서 29년으로 앞당겨지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계가 빨라지는 중 → 천궁-Ⅱ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KAMD 패키지 수출로의 확장을 기대

■ 27년 예산에 강조되는 드론/대드론 역량, 한국도 이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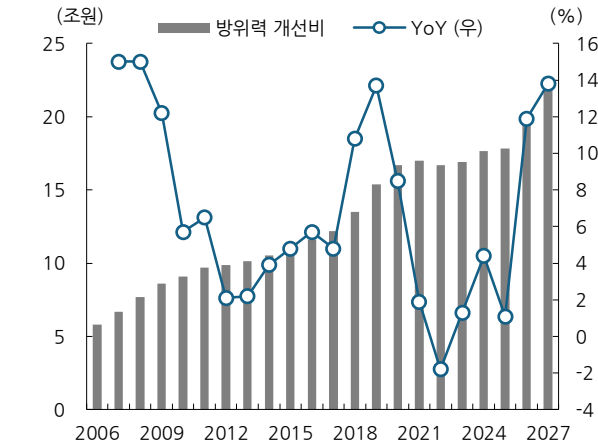
- 전작권 전환 예산의 주요 항목에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KUS-FS) 조기 전력화도 포함
- MUAV는 대한항공이 체계종합,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가 SAR·데이터링크·지상통제체계, 한화시스템이 EO/IR을 담당. 초도 양산기가 26년 4월 출고됐으며, 27~28년에 걸쳐 9,800억원 규모의 양산이 진행될 예정
-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예산은 8,061억원(+18.8%)으로 중거리 자폭드론 투자 확대와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확보가 중심
-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동형 Block-II 연구개발 신규 착수도 명시. 한화시스템의 '천광'은 24년 1월 세계 최초로 전력화됐고 26년 6월에는 핵심 부품인 레이저발진기 국산화에 성공
- 현재 장갑차 등 모빌리티 탑재형 Block-II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출력도 기존 20kW에서 30kW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 해당 체계를 전력화한 국가는 한국 외 미국·이스라엘 정도에 불과해 '천광'의 수출 경쟁력 또한 우수하다는 판단. 현재 폴란드 및 중동 국가들과 수출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
- Top Pick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그림1 한국 국방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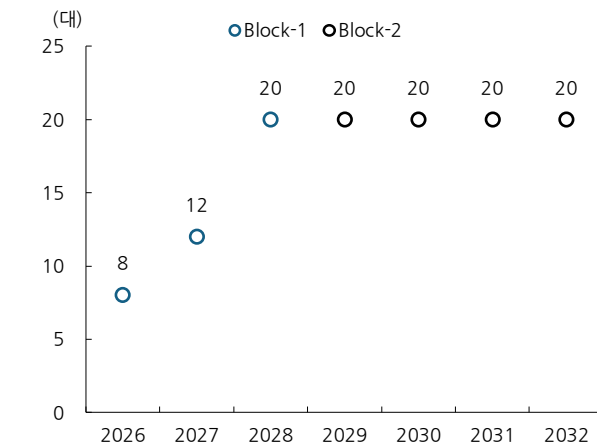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한국 방위력 개선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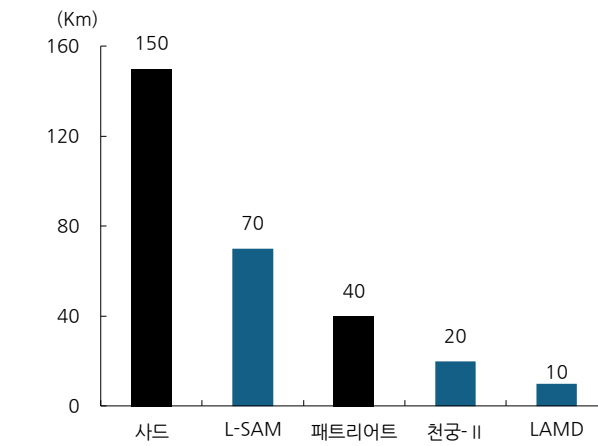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KF-21 Block-1,2 연도별 인도 예정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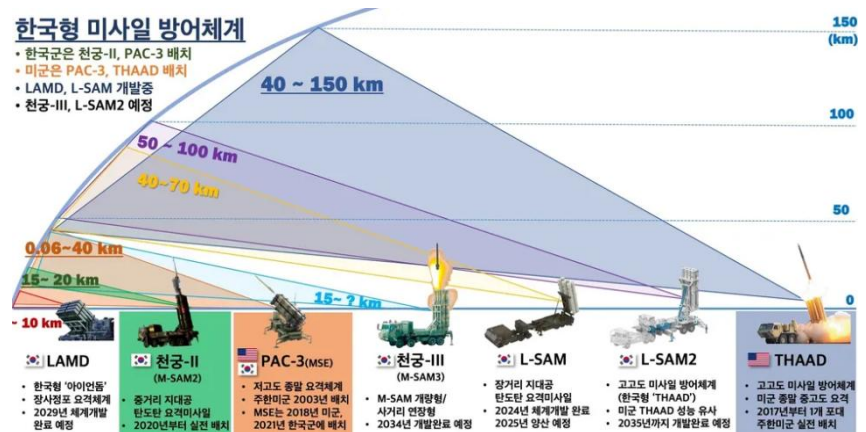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종합,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4 KAMD 구성 방공망별 최대 요격 고도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성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고도 경찰 무인기 RQ-105K(KUS-F5)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소형 자폭드론 KUS LM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27년 국방예산안에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명시

-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 국방예산 증가율 8.2%, 최근 20년 내 최대
 -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 고려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로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추진장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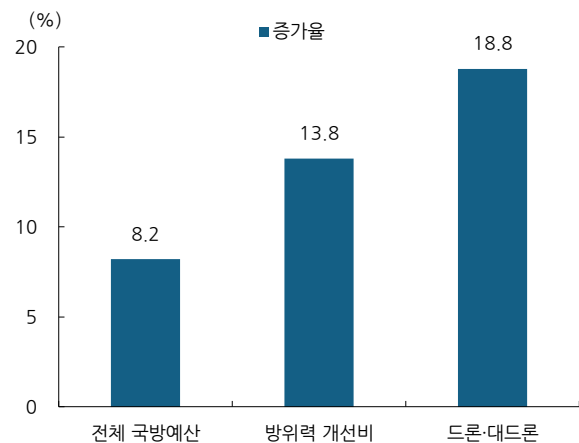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레이저대공무기 '천광' Block-1 (고정형)



자료: 방위사업청,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방 예산 항목별 증가율 비교



자료: 국방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천광 Block 1~3 개발 방향

구분	Block 1	Block 2	Block 3
개발 방향	근거리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레이저 무기 확보	이동형 플랫폼 적용과 출력·정밀도 향상, 소형·경량화	고출력화를 통해 대응 거리와 표적 범위 확대
운용 형태	고정형 중심	이동형	함정·항공기 탑재
출력 관련 공개 정보	20kW급	30kW급	100kW+
개발 일정	2019년 8월 착수 → 2023년 4월 전투용 적합 판정	2027년 연구개발 신규 착수 계획이 국방예산 정부안에 반영	2030년 개발 구상
양산 전력화	2024년 6월 양산계약 → 2024년 12월 최초 전력화	양산 전력화 일정 미확인	양산 전력화 일정 미확인

자료: 방위사업청, 언론 보도 종합,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크로아에 첫 수출...유럽국가 중 4번째 도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국방부와 4억1000만 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K239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
-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첫 방산 계약이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 이후 유럽 국가와 성사된 두 번째 방산 계약
- 천무 18대를 비롯해 탄약운반차량, 사격지휘차량, 중·장거리 정밀유도탄 등을 2030년까지 공급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해 MRO 체계도 구축할 계획
- 크로아티아는 노후 다연장로켓 불칸과 그라드를 대체하기 위해 전력 현대화를 추진해왔으며 2024년 하이마스 8대 도입에 이어 이번엔 천무를 추가선택
- 크로아티아 측은 협상 과정에서 기존 대량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천무의 신속 납품 능력을 높이 평가
- 이번 계약으로 유럽 내 천무 운용국은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4개국으로 확대

URL: <https://bit.ly/4AczLP>

한화오션, 6800억 태국 호위함 따냈다...후속 3척까지 최대 4조원대 짝꿍?

- 한화오션이 태국 해군의 4000톤급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호위함 1척 건조와 통합군수지원을 포함하는 약 6800억원 규모 사업
-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스페인, 싱가포르, 튀르키예 등 4개국 6개 방산업체가 수주전에 참여
- 2018년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태국에 3700톤급 호위함을 인도한 납품 실적이 결정적 배경으로 꼽힘
- 태국 해군이 2037년까지 호위함을 8척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후속 발주 포함 시 전체 규모가 최대 4조원대에 이를 수 있음
-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과 세부 조건을 조율해 본계약 체결에 주력할 방침
- 태국 해군은 18일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을 열 예정

URL: <https://bit.ly/471rNI9>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 美 벨과 2031년까지 헬기 동체 공급

-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가 미국 헬리콥터 제조업체 벨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최대 120대 규모의 벨 412 헬리콥터 동체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
- 원자재 조달부터 부품 제작, 조립, 최종 납품까지 전 과정을 맡는 턴키 방식
- 이번 계약으로 2027년부터 연간 매출이 현재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지난달 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

URL: <https://bit.ly/4gNVWAG>

한화 노린 오스탈USA에 美 투자사 맞불...최대 13.5억달러 제시

- 와일드캣 인프라스트럭처 주도 신디케이트가 오스탈USA 인수를 위한 구속력 없는 인수요청서(LOI)를 제출함
- 와일드캣 측은 4주간 실사를 전제로 오스탈USA 기업가치를 12억5000만~13억5000만달러로 제시함
- 이는 한화디펜스USA가 지난달 제시한 10억5000만~12억달러보다 상단 기준 1억5000만달러 높은 수준임
- 다만 양측 제안 모두 구속력이 없어 최종 인수 가격과 인수 주체는 확정되지 않음
- 한화는 오스탈 지분 19.9%를 확보했고 2024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조선업에 진출함
- 오스탈USA 확보 시 미국 내 생산거점 추가와 함께 미 해군 함정, 선박 수리, 잠수함 공급망으로 사업 영역 확대 가능
-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 조선소에서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하고 일렉트릭보트와 협력해 잠수함 모듈을 제작함
- 다만 오스탈USA는 2026 회계연도 EBIT 손실이 2억280만달러에 달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상태
- 오스탈 전체는 5350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한 반면 호주 사업은 8530만달러의 EBIT를 올림
- 한화 입장에선 적자 사업 정상화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음
- 인수전은 가격 외에도 미국 방산·안보 규제, 정부 판단, 인수 후 사업 유지·투자 계획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오스탈로서는 두 후보 간 경쟁으로 매각 조건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URL: <https://bit.ly/4gSMkoo>

"수출 정조준"...K방산, 홀대에도 국내 무인전력 수주경쟁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이 최종 선정된 다목적무인차량 전력화 사업 예산이 방사청 요구분의 3%만 반영되는 등 국산 무인 체계가 푸대접을 받고 있음
- 방사청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목적무인차량은 88억원 요구에 3억5000만원, 소총사격무인항공기는 103억원 요구에 43억원만 반영
-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는 434억원 요구분의 0.3%인 약 2억원만 반영
- 반면해외 구매 예정인 중거리자폭드론은 403억2900만원 요구에 383억5300만원이 편성됨
- 정부의 '50만 드론전사' 구상에도 예산이 적게 반영된 배경에는 아직 부족한 국산 무인체계 기술력이 있음
- 소총사격무인항공기는 올해 입찰 2개 기종 모두 성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는 구매시험평가 기준 미충족으로 중단
- 국내 개발 중인 중형자폭드론은 8월 해양운용실험에서 이륙 4초 만에 추락
- 그럼에도 국내 방산기업들은 장기적 글로벌 수요 선점과 수출 시장을 겨냥해 무인체계 전력화 사업에 적극 참여 중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예산 삭감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아리온스멧 양산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 아리온스멧은 현지 성능 시연을 마친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핀란드 등 3개국으로부터 정보요청서(RFI)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URL: <https://bit.ly/4h2fH6t>

· 글로벌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사우디 왕세자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예멘의 이란 연계 후티 반군과의 전투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이 금요일 밝힘
- 두 소식통은 워싱턴이 리야드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의향은 없지만 정보 공유와 표적 설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함
- 후티 반군이 아라비아 반도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면, 그들의 배후인 이란에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주요 수송로를 통한 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유가를 급등시킬 수 있음
-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분쟁으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흐르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이후 홍해 항로에 의존
- 이번 긴장 고조는 7월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기"가 사나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는 이란 민간 항공기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
- 하지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후티 반군과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전쟁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

URL: <https://bit.ly/4yEZFxs>

사브, 스웨덴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자로 선정

- 사브는 스웨덴 국방물자청(FMV)으로부터 약 29억 스웨덴 크로나(약 3억 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스웨덴의 차세대 전투기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수요일 성명을 통해 발표
- 이번 계약의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2029년과 2030년까지 연장 옵션이 포함
- 사브에 따르면 비행 및 지상 기반 시연기, 첨단 연구, 그리고 유인 및 무인 플랫폼 모두를 위한 미래 시스템 개념 개발을 포괄
- 이번 계약은 스웨덴의 2040년 이후 공군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항공기 개념 설계(Koncept för Framtida Stridsflyg, KFS)' 또는 '항공기 개념 설계(Värgvalgval stridsflyg)'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 번째 계약
- 사브는 이전에 F 시리즈 브랜드로 유인 전투기를 비롯해 다양한 중량과 형태를 가진 아음속 및 초음속 무인 플랫폼 등 여러 콘셉트 기종을 공개한 바 있음
- KFS는 스웨덴이 2023년 영국 주도의 팀 템페스트 프로젝트(이후 GCAP으로 개칭)에서 철수하고 자체적인 국내 개발을 선택한 후 출범

URL: <https://bit.ly/4imPLVp>

스웨덴, 약 7억 3천만 달러에 HIMARS 로켓포 구매 예정

- 스웨덴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M142 히마르스 로켓포 시스템 구매를 승인했으며, 구매 가격은 약 70억 스웨덴 크로나(미화 7억 3300만 달러)
- 정부는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아처 자주포를 보완할 수 있는 신속하게 확보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스웨덴 국방부는 월요일,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의 첫 납품이 2027년에 예정되어 있다고 밝힘
- 국방부는 미국산 로켓포를 도입함으로써 스웨덴군이 현재 운용 중인 포병 시스템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긴 사거리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에스토니아는 지난 4월 이란 전쟁으로 인해 HIMARS 탄약 납품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스웨덴의 생산 일정은 이러한 병목 현상이 발사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 스웨덴의 이웃 나라인 노르웨이는 지난 1월, 장거리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화의 천무 로켓포 시스템을 스웨덴의 HIMARS 시스템보다 선호하여 공급업체로 선정
- 요한 페카리 스웨덴 육군 참모총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HIMARS를 도입하여 장거리 정밀 전투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 육군뿐만 아니라 전체 군대와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힘
- 현재 유럽에는 HIMARS에 필적할 만한 자국산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미국 시스템 구매와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으로 MBDA와 Safran이 개발 중인 프랑스제 로켓포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
- 국방부는 이번 구매와 동시에 록히드 마틴과 사브가 사브의 지상 발사 소형 직경 폭탄(Ground-Launched Small Diameter Bomb)의 잠재적 통합 및 HIMARS용 탄약 생산, 그리고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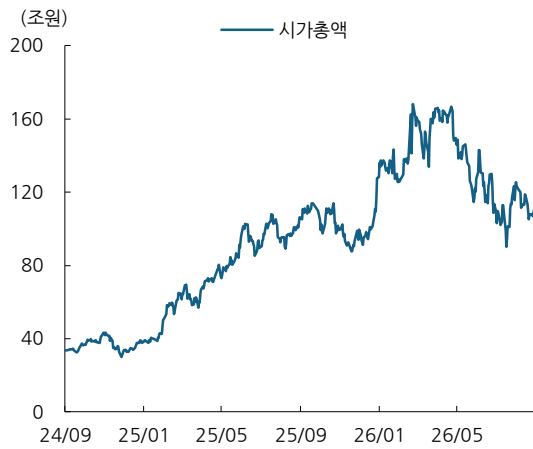
URL: <https://bit.ly/3SM07DX>

이탈리아, MQ-9A 리퍼 2대 신규 주문...미국은 새로운 대안 모색

- 이탈리아는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로부터 MQ-9A 리퍼 블록 5 드론 2대를 추가로 주문했으며, 해당 드론은 2027년 말에 인도될 예정
- 회사 발표에는 계약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 국무부가 2024년 8월에 승인한 MQ-9 블록 5 항공기 최대 6대 및 관련 장비 조달에 관한 해외 군사 판매(FMS)에 따른 것으로, 예상 비용은 7억 3,800만 달러(6억 3,400만 유로)
- 국방부 브리핑 후, 제너럴 아토믹스는 대변인 C. 마크 브링클리는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리퍼의 "독보적인 내구성, 탑재량, 사거리, 센서, 무기, 연결성, 적응성 및 신뢰성의 조합이 바로 다른 기종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임무 수행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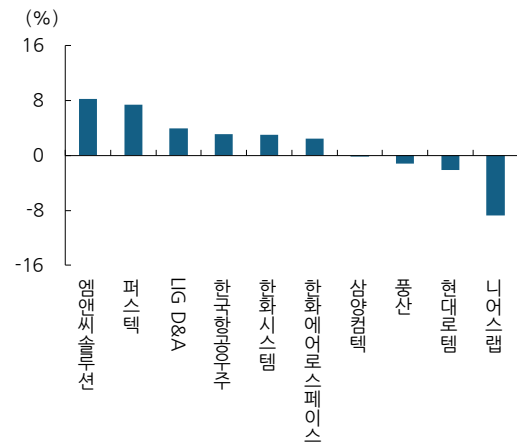
URL: <https://bit.ly/46KYrOe>

그림12 방산 5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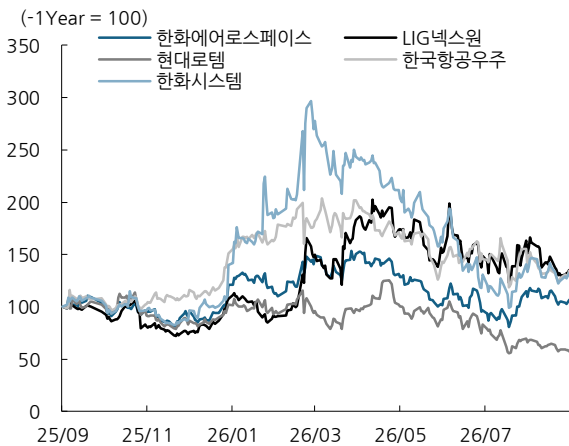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방산 주요 기업 1W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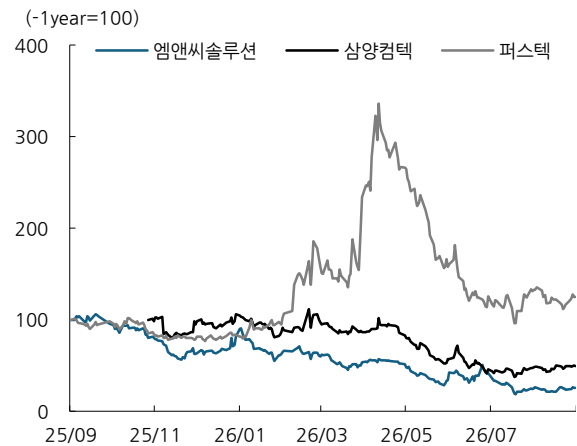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방산 5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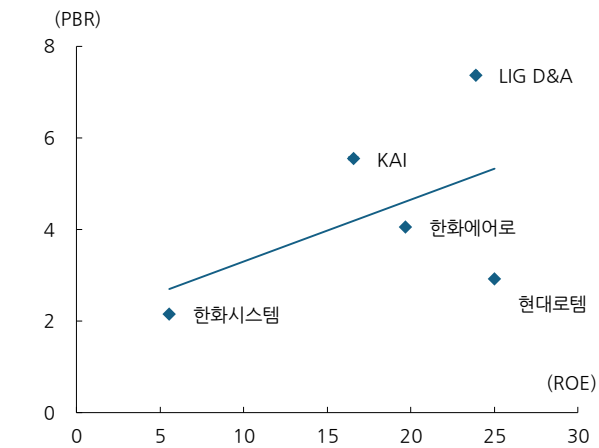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방산 주요 부품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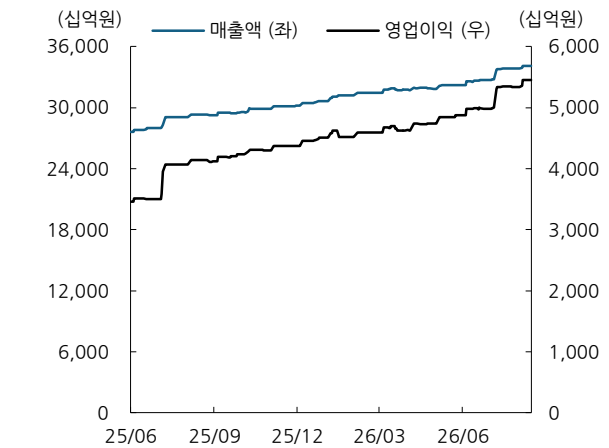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방산 5사 12M Fwd PBR-ROE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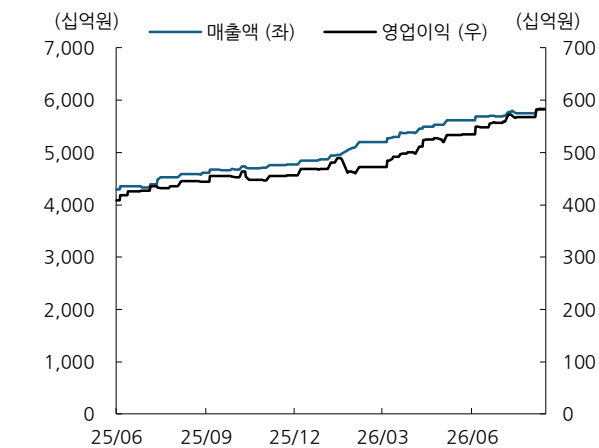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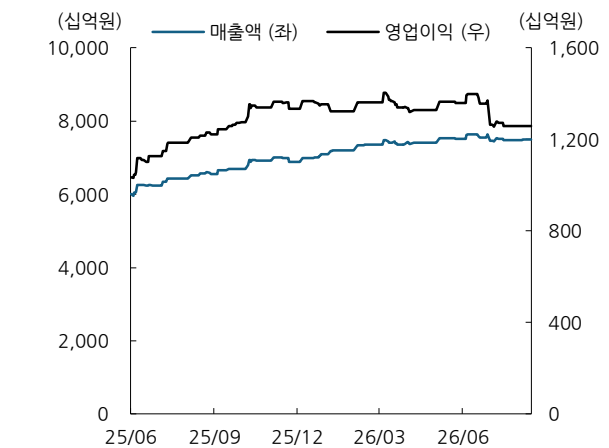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LIG D&A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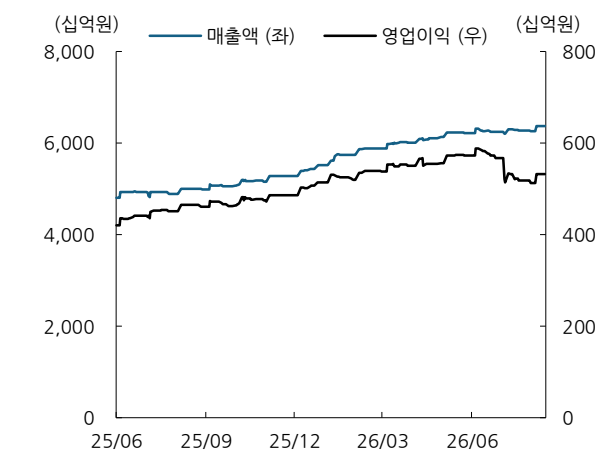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현대로템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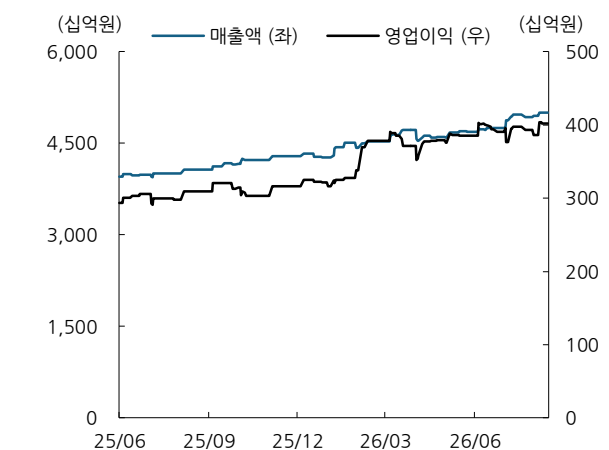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한국항공우주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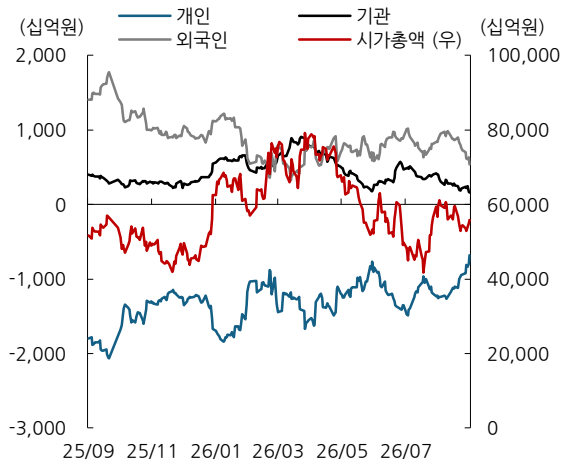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한화시스템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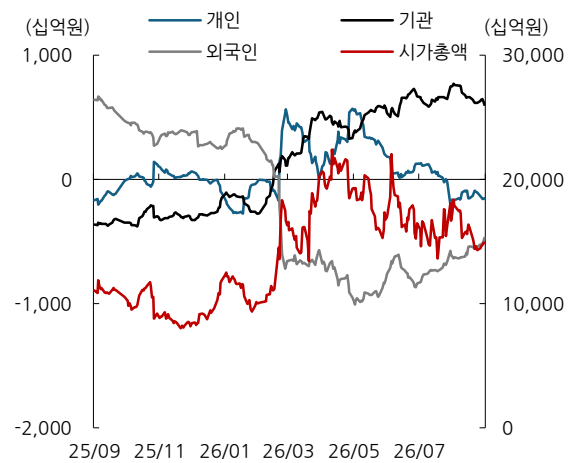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한화에어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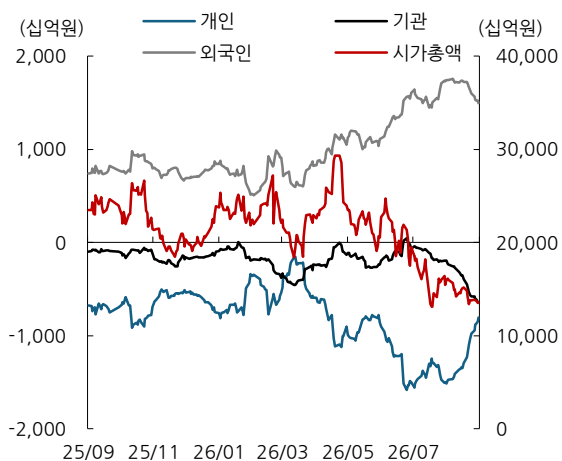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LG D&A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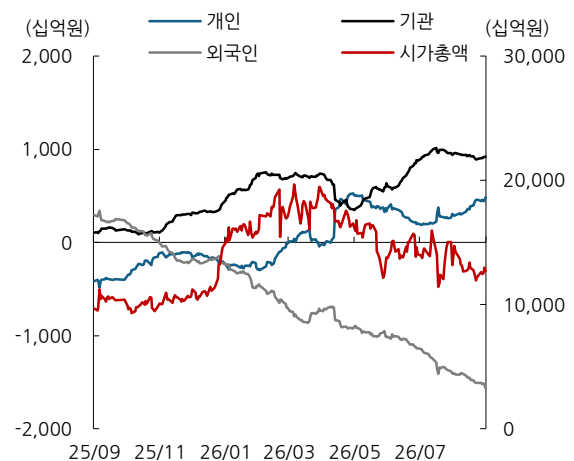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현대로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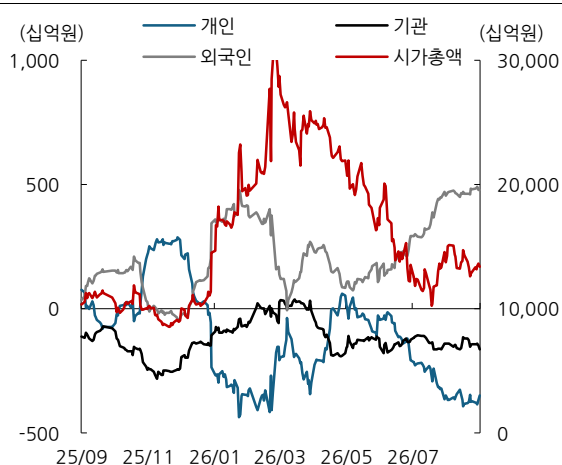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한국항공우주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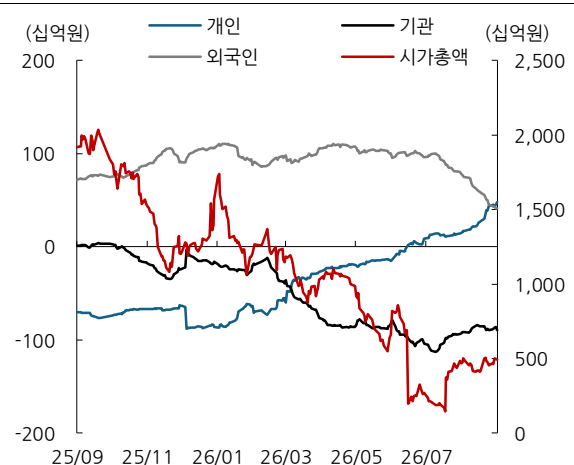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한화시스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엠앤씨솔루션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